

조부모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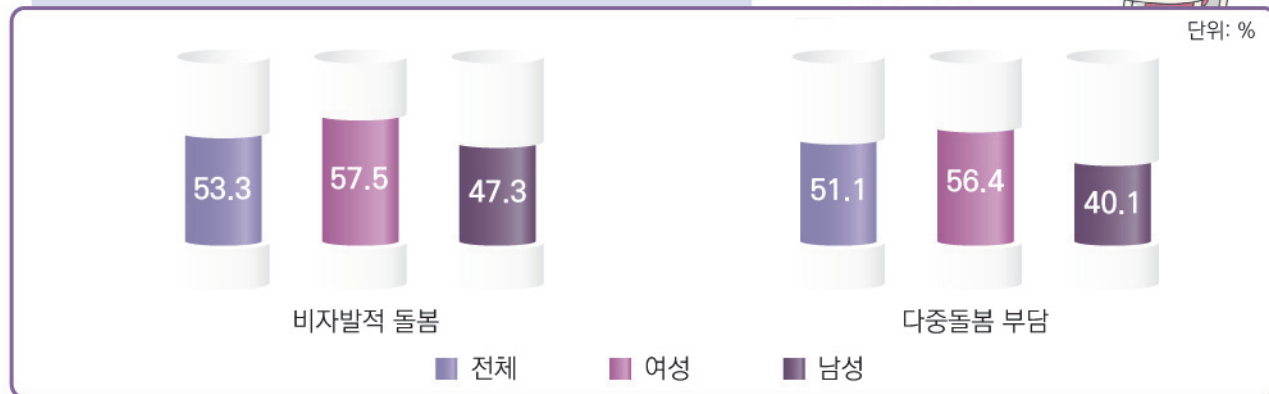
초록

- ▶ 이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는 구조적 기제를 규명함.
- ▶ 연구 결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그 부담은 특히 여성 노인에게 더 크게 나타남.
- ▶ 조부모 돌봄없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로 ▲조부모 돌봄수당 확대보다 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시간 구조 재편 ▲미취학 아동 방과후 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 ▲초등 돌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등을 제안함.

인포그래픽

조부모 돌봄 관련 인식 비교

비자발적 돌봄과 다중돌봄 부담에 대한 인식 수준



* 이 이슈페이퍼는 202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일부 발췌하고 정리해 제작되었습니다.

출처: 마경희·김소영·김은지·문희영(2025). 조부모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1 배경 및 문제점

- ▶ 지난 20여년간 영유아 보육정책, 일·가족 양립제도, 초등돌봄 정책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와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비공식 돌봄자원으로서 조부모에 대한 의존은 매우 높은 상황임.
- ▶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최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수당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음. 중앙정부에서도 손자녀 돌봄 수당 지원을 제도화 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조부모와 부모의 실질적 수요와 대중적 지지,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접근은 조부모 돌봄을 공적 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 특히 조부모 돌봄 경험의 구체적 실태, 손자녀 돌봄의 자발성, 돌봄 시간과 강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제한적임. 나아가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과 기존의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 검토 또한 부족함.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그 자체를 당연시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여 장려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일하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성별분업이 견고한 사회에서 조부모 돌봄이 여성 노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노년기 여성의 다차원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 이 연구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는 구조적 기제를 규명하고자 함. 나아가 조부모 돌봄없이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2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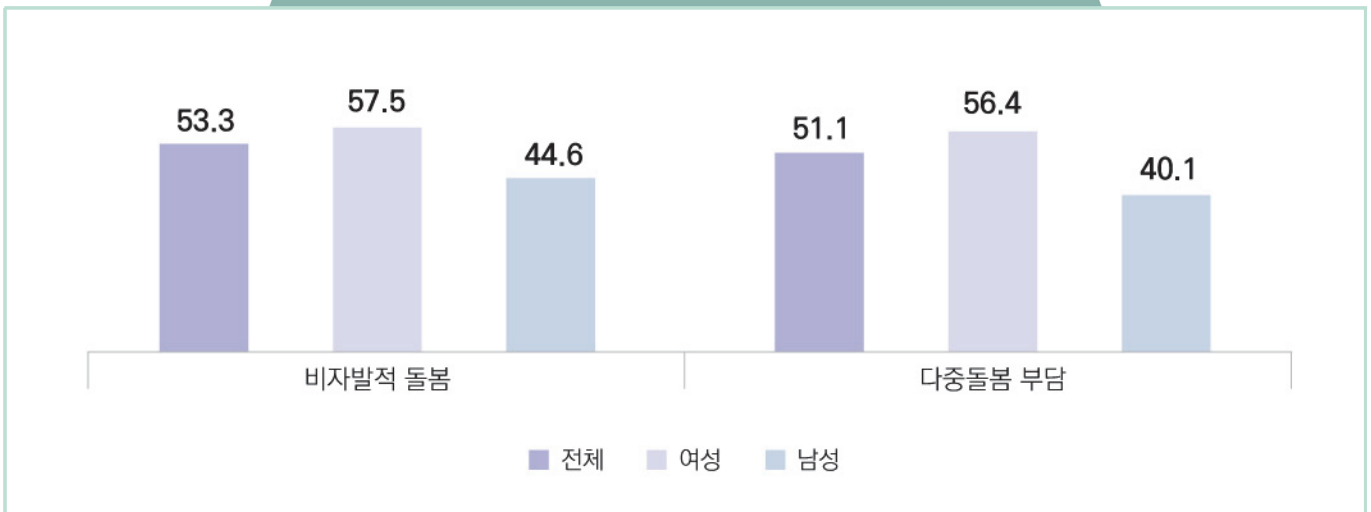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손자녀 돌봄 현황과 문제점, 돌봄의 구조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파악
- 모집단: 지난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만55-74세 조부모
- 표본수: 1,063명(여성 660명, 남성 403명)
- 조사기간: 2025.7.28.-2025.8.18.
-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 ▶ 조부모는 평일 거의 매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봄
 - 조부모는 평일(월-금)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 손자녀를 돌보고 있으며, 이는 주당 27.23시간에 해당함. 조부모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시간이 길어지는 반면, 남성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돌봄 시간이 가장 짧음.
- ▶ 조모가 대부분의 돌봄을 제공하며, 조부는 보조적 돌봄자 역할을 주로 함
 - 15개 항목의 손자녀 돌봄 활동별 주돌봄자를 조사한 결과 조모는 9개 항목(밥차리기/먹이기, 간식 챙기기, 식사준비, 안정시키기, 곁에 있어주기, 등하원 동행, 실내놀이, 목욕, 아플 때 병원 동행), 손자녀의 모는 5개 항목(손자녀 부모 식사준비, 손자녀 옷 빨래, 손자녀 부모 집안일, 잠재우기, 학습지도), 조부는 1개 항목(실외 놀이)에서만 주돌봄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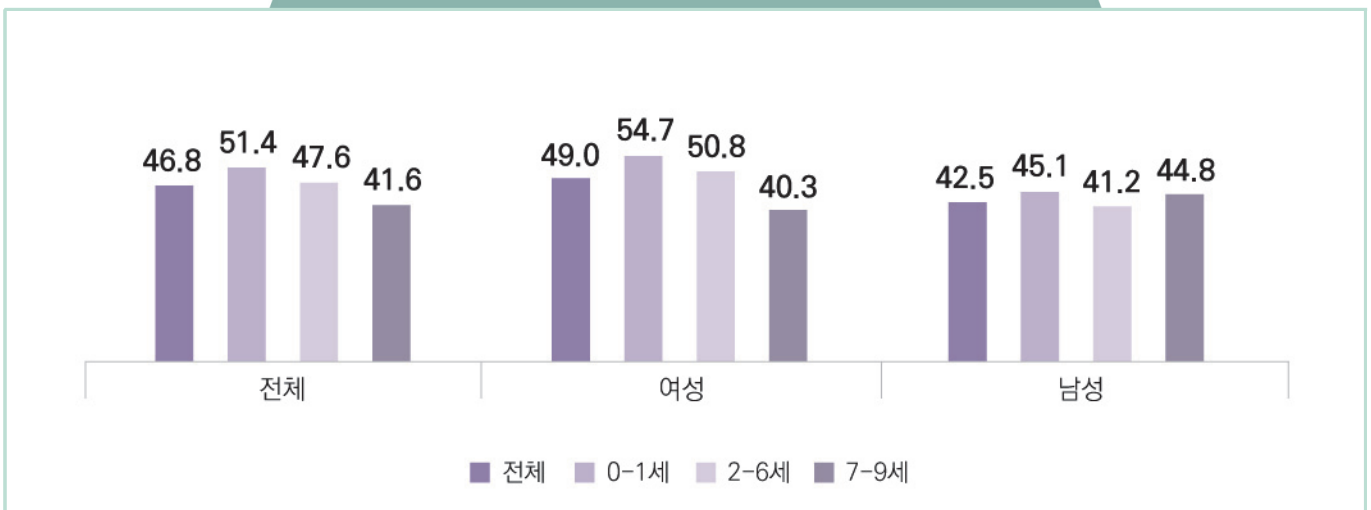
- 손자녀의 일상적 욕구의 대부분은 조모가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조부가 주돌봄자 1순위인 활동은 실외놀이(30.7%)가 유일했음. 이 역시 조모가 1순위라는 응답(29.1%) 비율과 큰 차이가 없음. 그 밖에 20% 이상이 조부가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활동은 등·하원, 실내놀이 정도였음.
-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돌봄, 다중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남.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중 53.3%(여성 57.5%, 남성 44.6%)가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돌봄자이며, 51.1%(여성 56.4%, 남성 40.1%)는 손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원까지 챙기면서 손자녀를 돌보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여성은 남성보다 비자발적 돌봄 12.9%p, 다중 돌봄의 어려움 16.3%p 더 높음.

성별 비자발적 돌봄 및 다중돌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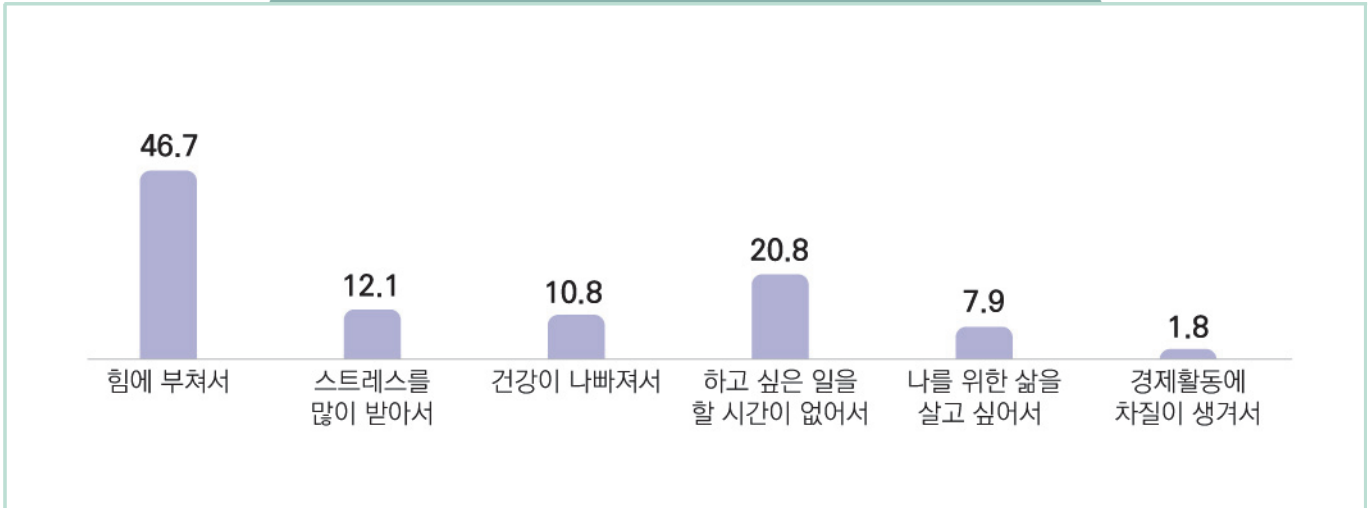


- ▶ 적지 않은 조부모가 손자녀 돌봄 중단을 생각해 본적 있으며, 주된 이유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임.
 -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 중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 하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여성(49.0%)이 남성(42.5%)보다 높음. 여성은 손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돌봄 중단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아짐. 0-1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은 54.7%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음.
 - 중단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에 부쳐서(46.7%), 손자녀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12.1%), 건강이 나빠져서(10.8%)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6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성별 손자녀 연령별 돌봄 중단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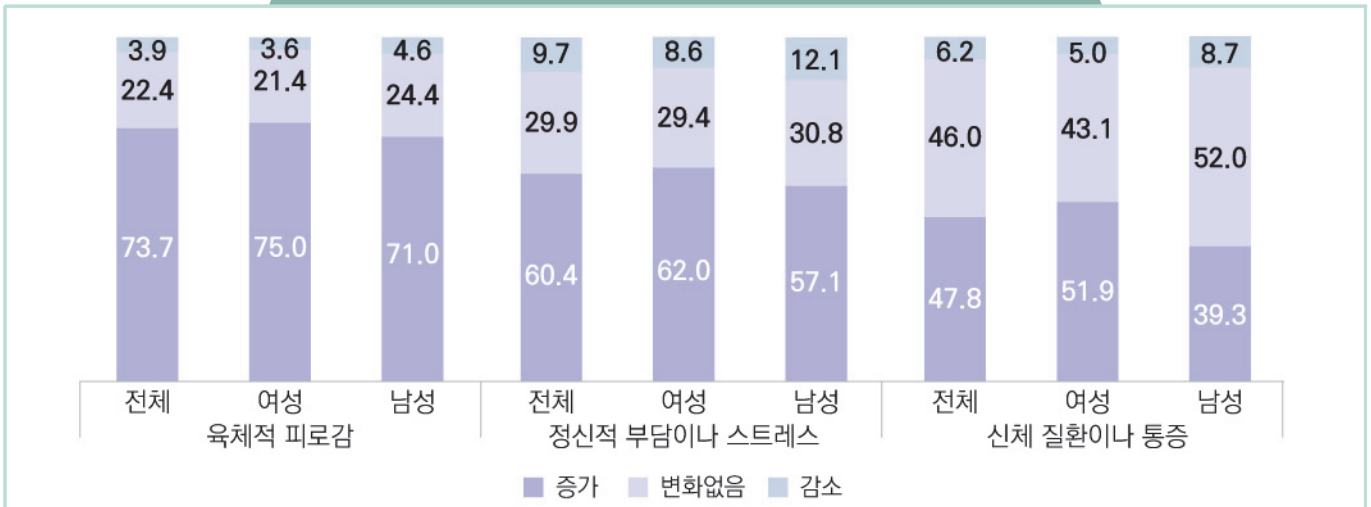
손자녀 돌봄 중단 생각 이유



▶ 실제로 손자녀 돌봄은 노년기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특히 여성 노인에게 두드러짐.

- 손자녀 돌봄 이후 육체적 피로감,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증가 등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73.7%(여성 75.0% 남성 71.0%), 60.4%(여성 62.0%, 남성 57.1%)로 높았음. 노년기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통증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47.8%(여성 51.9%, 남성 39.3%)로 절반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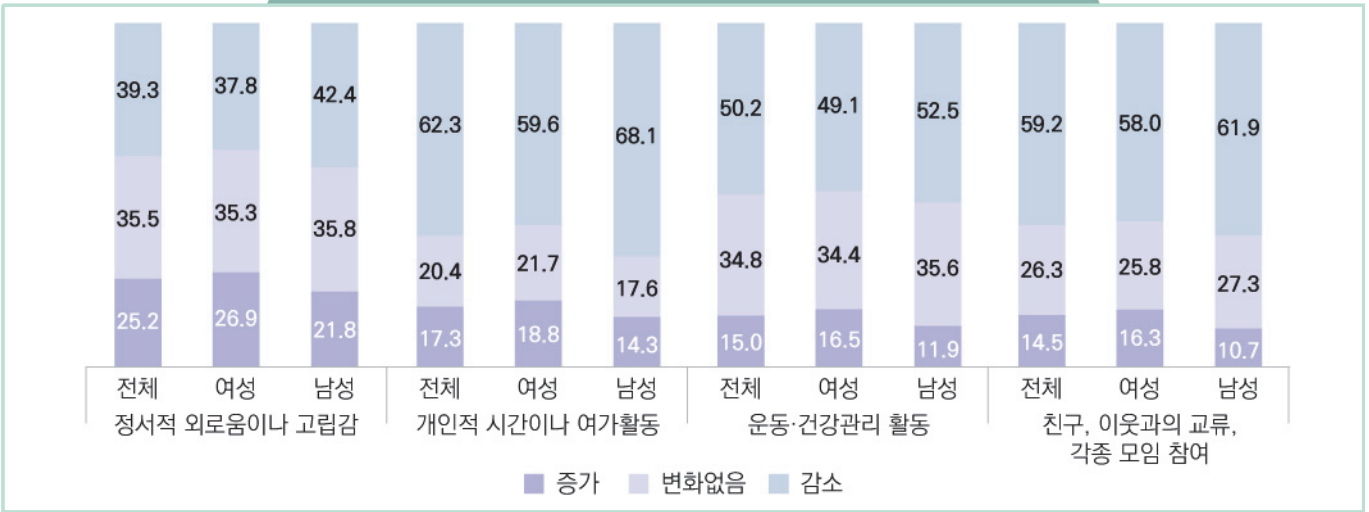
성별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변화



▶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립감 감소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정신·신체 건강을 위한 자기돌봄이나 사회적 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손자녀 돌봄으로 정서적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39.3%(여성 37.8%, 남성 42.4%)로 증가했다는 응답 25.2%(여성 26.9%, 남성 21.8%)보다 높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달리 긍정적 변화가 부정적 변화보다 많았으며, 그 긍정적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다소 높게 확인됨.
- 그러나 자기돌봄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서는 부정적 변화가 뚜렷함. 개인적 시간이나 여가 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2.3%(여성 59.6%, 남성 68.1%), 운동·건강관리 활동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50.2%(여성 49.1%, 남성 52.5%)로 나타났으며, 친구, 이웃과의 교류, 각종 모임 참여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59.2%(여성 58.0%, 남성 61.9%)에 달함.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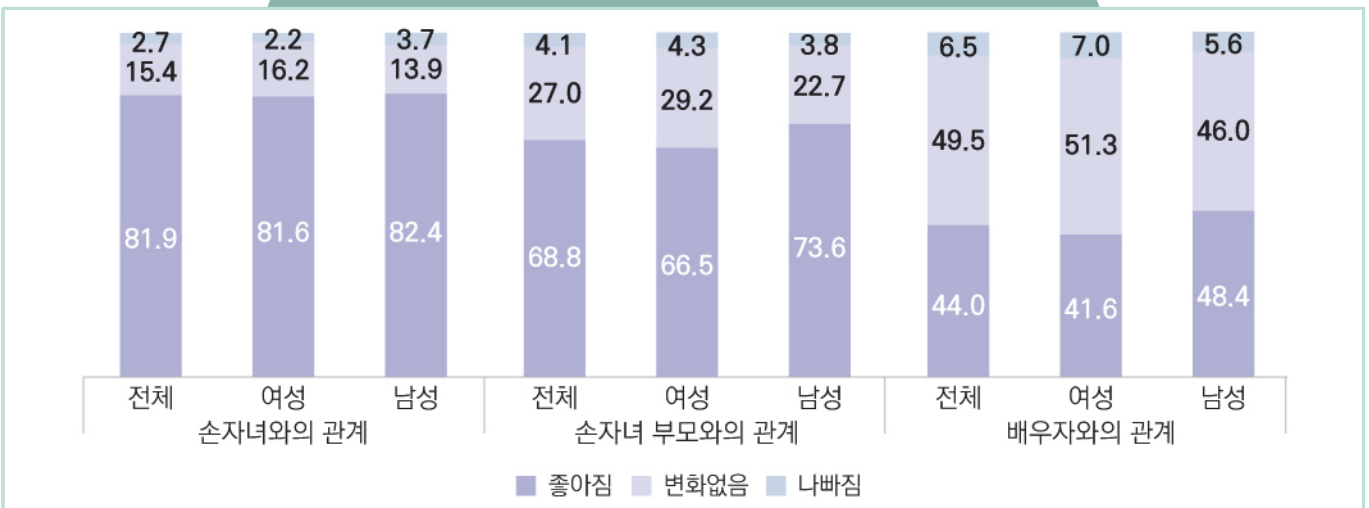
성별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자기돌봄 및 사회적 관계 변화



▶ 손자녀 돌봄은 손자녀 및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관계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확인됨.

-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81.9%(여성 81.6%, 남성 82.4%)로 성별 차이 없이 대다수가 관계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됨. 손자녀 부모, 즉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68.8였으며, 여성(66.5%)보다 남성(73.6%)이 더 높은 비율을 보임.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44.0%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이 역시 여성(41.6%)보다 남성(48.4%)이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손자녀 돌봄이 세대간 유대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 동시에 특히 남성 노인에게는 가족 내 역할 확대를 통해 자녀 및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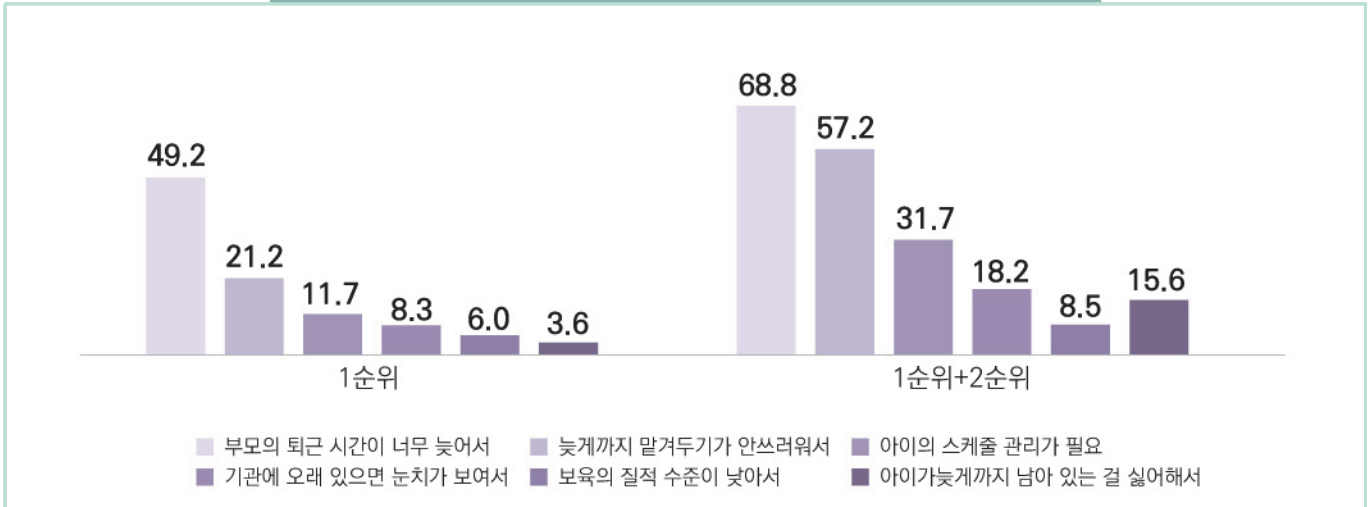
성별 손자녀 돌봄으로 인한 가족 관계 변화



▶ 미취학 아동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조부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된 이유는 보육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노동시간과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사교육 필요에 있음.

- 손자녀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조부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부모의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라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21.2%),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11.7%)순으로 나타남.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복수응답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함.

취학 전 아동 공적 돌봄 서비스 외 조부모 돌봄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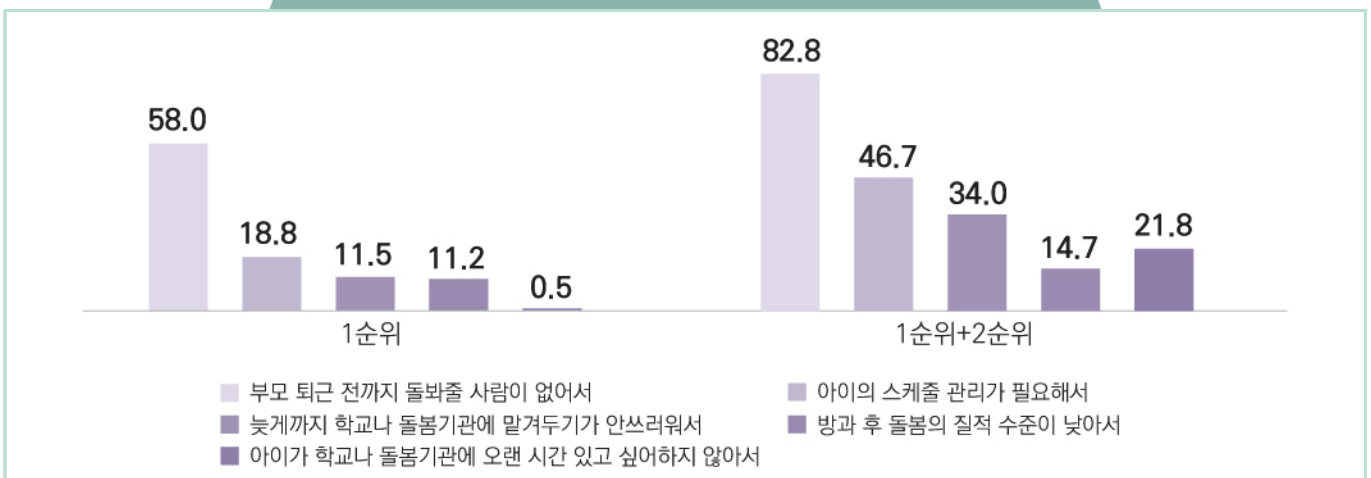


▶ 학교돌봄이나 마을돌봄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노동시간 문제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일정 관리 필요성과 가족 돌봄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주된 요인으로 확인됨.

-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조부모 가운데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58.0%가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부모의 늦은 퇴근시간이 핵심 요인임을 보여줌. 다음으로 '학원 등하원 등 아이의 스케줄 관리가 필요해서'(18.8%), '늦게까지 학교나 돌봄기관에 맡겨두기가 안쓰러워서'(11.5%)순으로 나타남.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복수응답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됨.

▶ 정리해 보면,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노동시장 관행,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시설에 맡겨두기를 꺼려하는 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가족 돌봄 우선 가치관, 그리고 경쟁적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가족 전략으로서 사교육 필요가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기제임을 알 수 있음.

초등학생 공적 돌봄 서비스 외 조부모 돌봄 필요한 이유



3 정책제언

▶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손자녀 돌봄은 조모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여성의 노년기 돌봄 부담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큼. 성별화된 돌봄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조건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은 '돌봄의 가치 인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 노인의 비자발적 돌봄을 고착화하는 장치로 기능할 우려가 있음.
- 조부모 돌봄 수당은 노년기 건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 노년기의 돌봄 노동은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우울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단 악화된 건강은 회복이 쉽지 않음. 사회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손자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손쉬운 대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인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는 거리가 있음.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은 '가족이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평가절하됨. 노인들이 기대하는 조부모 돌봄에 대한 적정 임금 수준은 평균 10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 손자녀 1인당 지급하고 있는 평균 수당은 30만원 수준에 불과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자원배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음. 조부모 돌봄 수당은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된 정규직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안정적인 가구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조부모 돌봄 부담의 근본적 원인은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경직된 노동관행에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데 그침.
- 공적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 재전가하고, 공적 돌봄 시스템 개선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조부모 돌봄 수당은 이미 가족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선회함으로써 공적 돌봄 체계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의 책임을 방기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조부모 돌봄 수당보다 부모의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 시간 구조 재편이 필요함.

-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탐욕스러운 일' 중심의 시간 구조를 지속가능한 시간 구조로 재편해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됨.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돌봄 중심의 노동시간 재편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주 4.5일제가 돌봄 책임없는 노동자를 전제로 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재배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리고 이러한 노동 관행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노동자에게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적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특히 방과후 시간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함. '유보통합'은 이러한 질적 수준 제고의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방과후 시간에 대해 학원이나 조부모 자원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돌봄기관 자체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됨.
-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가 동시에 요구됨. 늘봄학교는 학교돌봄에 대한 높은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양적 확대는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됨. 그러나 '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상으로는 무상보육의 질적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학원 시장과 경쟁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적절한 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득계층별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구조를 만들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성평등가족부